# 마이디팟 웹소설 투고 시놉시스 양식

라떼북(로맨스), 페이즈(BL), 다카포(로판)

| 작품명 | 푸른 장미 정원의 주인은 돈벌레 영애입니다. | | |
|---|---|---|---|
| 보낼곳 | info@mydepot.co.kr | | |
| 장르 및 수위 | 로맨스판타지 (15금) | 필명 | 오누스 |
| 희망 출간 방향 | 리디, 카카오 등 유료연재, 또는 단행본 출간 | 연락처 | ohnus97@naver.com<br>010-3227-1733 |
| 예상 완결 분량<br>(공백 미포함 기준) | 150화 / 약 75만자 | | |
| 키워드 | #다정남 #능글남 #후회남 #쌍방구원 #능력녀 | | |
| 무료연재 여부 | 현재 (24.02.29) 디리토에서 9화까지 연재함. | | |
| 작가 이력 | 신인 | | |

## 로그라인 / 기획 의도

회귀, 빙의, 환생의 소재가 넘치는 로맨스 판타지에서 조금 색다른 소재로 1명이 아닌 남매가 동시에 빙의하는 전개로 시선을 끌어 소설 안에서 가족애, 남녀간의 사랑, 부모세대의 과오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 작품 소개

부모님의 사망 이후, 돈벌기에 혈안이 된 채로 살아가던 세나.

남동생과 싸운 후, 의문의 사고에 의해 위험에 처한 뒤 깨어나보니 남동생이 생일선물로 준 시험판 게임 [세이빙 엠파이어]에 빙의되었다?

게임 속에서 세나가 플레이하던 아리아는 리버티라는 남자와 10년째 약혼중이었다.

그런데 왜 게임 속 약혼자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가 서로 눈이 맞은거야?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완전 닭 쫓던 개, 낙동강 오리알 신세잖아?

비운의 연인, 비련의 연인, 가련한 운명의 장난, 비극적 남매가 되어버린 연인…

나와 리버티는 어느 새, 제국 사교계 최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있었다.

근데 자꾸 보다보니 답답한 행동만 골라하는게 꼭 전생의 남동생과 전 약혼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한다.

어쨋든, 이 사태를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정혼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마침 내 전 약혼자의 왕실학교 동문이자 제국 황실 서열 4위인 펠릭스 몬드가 적극적으로 구혼하는데!!

과연, 세나는 비극적 스캔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캐릭터 소개**

- 남자 주인공 : 펠릭스 몬드 (대공작가문/황위서열4위) / 22세

솔라 제국 후계 순위 4위, 왕실학교 기계공학 차석졸업, 솔라 제국의 왕실을 상징하는 검은 머리카락의 검은 눈동자는 가진 미남자인 펠릭스 몬드는 마음만 먹으면 제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재력과 지위를 가진 남자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포기하고 북부를 지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수도에는 왕실학교 재학시절 외엔 오래 머무른 적이 없다. 졸업 후, 북부로 바로 올라가 버린 그가 리버티와 아리아의 파혼 이후 진행된 손느-카를로스의 결혼식에 나타났다. 첫 만남에서부터 아리아에게 적극적으로 결혼 플러팅을 하는 펠릭스. 그는 과연 아리아와의 결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울어줘, 아리아드네. 당신의 파란 눈에서, 날 위한 눈물이 흘러 내리는걸 보고 싶어졌어.”

- 여자 주인공 : 아리아드네 손느(박세나)(공작가문/외동딸)/20세

남동생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n잡러 세나는 똑똑한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 남동생과의 싸움 이후, 뛰쳐나간 남동생을 붙잡으로 가던 중 남동생과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눈을 뜨자 동생이 선물로 준 게임에 캐릭터로 빙의했다. 동생이 준 게임은 아리아의 플레이 실패로 멸망엔딩을 봤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선택으로 멸망엔딩을 막으려고 한다. 아리아의 가문은 제국의 문화예술 기반 사업을 운영중이었고 푸른 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귀한 집 아가씨를 염원하며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 이번엔 멸망엔딩을 피해 완벽한 결혼에 성공해 놀고 먹는 귀부인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10년동안이나 약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교계에선 사실혼으로 취급받고 전 약혼자이자 오라버니가 되어버린 리버티는 점점 남동생과 겹쳐보이기 시작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는 당신의 기적이 될래요.”

- 여자 주인공의 남동생 : 리버티 카를로스(박세준)(공작가문/외동아들)/ 22세

항상 자신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하던 누나의 즐거움을 찾아주기 위해 시

험판 게임을 만들어 준 세준. 어김없이 K남매의 말싸움을 하고서는 열이 받아 바깥으로 뛰쳐나와서는 누나인 세나와 함께 사고에 휩쓸려 눈을 뜨니 내가 만든 게임속으로 빙의했다. 그것도 누나의 10년된 약혼남으로! 누나와 함께 빙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 자신의 캐릭터와 누나의 캐릭터가 파혼하고 부모님의 결혼으로 남매가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누나가 플레이하던 캐릭터는 도무지 누나인 세나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행동도 말투도, 말싸움의 패턴도 전부 세나와 똑같다. 서로 발작버튼을 열심히 누르며 싸우다 보니 든 생각은 '뭐야? 얘 박세나 아니야?' 하고 확인하니 진짜 누나였다. 잠깐, 그럼 이거 멸망엔딩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 아리아와 함께 멸망엔딩을 벗어나 이번에는 남매가 돈 펑펑 쓰며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살고싶다고! 그런데 펠릭스가 나타나 아리아의 혼처를 자처하며 자신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두고 사라지지마"

- 여자 조연 (리버티와 러브라인) : 레아 페이버 (후작가 장녀) /23세

남부의 석유 사업을 필두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온 페이버 가문의 장녀인 레아. 제국을 휩쓴 스캔들의 주인공인 롱스 손느 공작과 파라 카를로스 공작 부인이 남부에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의 아버지는 파라 카를로스의 외동아들인 리버티가 기계공학 수석졸업자라며 손느-카를로스 가문과 사업적으로 엮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결국, 남부를 소개하는 가이드가 되어 그들을 보좌하는데 파라는 자신이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 수도로 함께 올라가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미혼이라며 자꾸 자신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데... 리버티라는 남자는 아리아 라드네 손느와 10년동안이나 약혼 상태였는데 이렇게 바로 나를 엮어주려는게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득달같은 성화로 수도로 함께 가게 된다. 막상 손느 공작저에 입성하니 예쁘고 능력 좋고 어린 아리아와 자신이 끊임없이 비교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리버티의 취향과 공략법까지 알려주고 데이트를 주선하기도 한다. 뭔가 여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느낌이 풀풀 풍기는 아리아. 아리아에게 틱틱거리는 남동생같다가도 자신을 지켜주고 자상하지만 자신 앞에서 뚝딱거리는 기계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리버티가 점점 귀여워 보인다. 남부 귀족 모두가 꿈꾸는 수도로의 상경, 리버티와의 만남, 아리아와의 관계. 모든 것을 잘 풀어내고 싶은 레아. 그런데 파라 공작부인(악역 1)이 자신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한다.

-남자 조연 (메인 악역) : 빅토르 몬드 (황태자)/22세

아버지 제프리 몬드, 그는 북쪽을 지키기를 자처하여 왕위를 양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늘 자신의 형인 호세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다. 마침 그 둘은 아들이 있었고 펠릭스는 빅토르에게 있어 눈에 거슬리는 가시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호세처럼 펠릭스 또한 왕정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아버지인 제프리가 한달에 한번 펠릭스를 인질처럼 수도에 붙잡아두는 동안 자신은 열심히 펠릭스를 괴롭혔다. 그 사실을 모

두가 알았지만 자신이 펠릭스보다 서열이 높기도 하고 호세도 모른 척하며 자신에게 오히려 잘 지내길 부탁한다는 말만 남길 뿐이었다. 그렇게 자신은 펠릭스를 괴롭히며 자기 만족을 얻었다. 한동안 펠릭스가 수도에 발걸음을 끊었고 마침 빅토르 자신도 펠릭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왕실학교에 입학하여 자신보다 한뼘 더 자란 펠릭스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신이 펠릭스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리버티 카를로스, 펠릭스 몬드 이 둘은 왕실학교 내에서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며 자신의 자격지심을 계속 자극하고 거슬리는 행동만 골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리버티의 약혼녀는 지속적인 관심을 리버티에게 표시하고 그걸 바라보는 펠릭스의 표정은 씁쓸해보이기까지 했다. 잠깐, 펠릭스의 표정이 씁쓸해? 너도 드디어 내가 느끼는 자격지심을 느끼는구나? 묘한 쾌감이 온 몸을 지배했다. 문득 저 두 사람의 중심에 있을 아리아라는 여자가 궁금해졌다. 아리아드네 손느. 그녀를 몰래 지켜본 이후 자신은 아리아와 같은 머리색이나 눈동자색을 가진 여자만을 만나며 병적인 성적 쾌감을 채워왔다. 마치 아리아 하나를 망가뜨리면 저 두 사람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문란한 생활로 인해 황제인 아버지가 자신을 남부로 유배보냈다. 그 분노는 아리아와 리버티, 펠릭스에게로 향했다. 이번 사교계 시즌에서는 파혼한 리버티, 아리아가 혼처를 찾을 것이고 펠릭스도 사교계에 늦은 데뷔를 한다고 했다. 펠릭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기고 아리아를 차지해 망가트려버리고 제국의 황제로 군림할 생각을 하며 빅토르는 수도로 올라왔다.

**줄거리(구체적으로)**

**기** (1~25화 예정)

남동생과 회귀한 사실을 알아내고, 아리아와 펠릭스의 과거 에피소드를 공개. 펠릭스와의 썸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메인 캐릭터 4명과 악역들의 등장으로 사교계 데뷔시작을 알리는 장.

**승** (26~60화 예정)

악역 1의 잔잔바리 악행과 메인 주인공 4명의 동맹관계를 확실시 하는 단계. 사교계 시즌의 시작~끝을 다루며 펠릭스와 아리아의 결혼, 리버티와 레아의 약혼으로 사교계 시즌이 끝남. 메인 주인공 4명은 북부로 전부 이동. 알콩달콩한 선 결혼 후 연애 스토리와 함께 리버티와 레아의 러브스토리 전개도 풀어낼 예정.

**전** (61~105화 예정)

아리아를 탐내는 메인 악역이 결국, 이번에도 아리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비어버린 수도에서 악역 1를 비롯한 주변인에게 악행을 가하기 시작함. 잘 풀리던 메인 주인공 4명의 관계도 살짝 악화됨.

- 아리아 - 펠릭스 : 리버티와의 자살기도 사실을 안 펠릭스가 극도로 예민해짐 & 아리아의 건강 악화 & 펠릭스와 카밀라의 파파라치 사건으로 아리아와 사이 멀어짐
- 리버티 - 레아 : 어쩔 수 없이 아리아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져가는 레아. 게다가 파라의 무리한 부탁과 명령들이 이어지며 심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힘. 점점 더 리버티가 좋아지기 시작함. 파라가 시킨 일로 아리아의 건강이 악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밀려오는 자괴감에 아리아와 리버티에게서 거리를 둠.

- 빅토르 : 악역1과 2를 부추겨 아리아를 위기로 몰아감. 지하세계 조직인 파테르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마약류 사업에 손을 댐. 의료용으로 사들이고 악용한 뒤, 범죄가 늘어나자 파테르 소탕 작전을 펼치겠다며 펠릭스를 북쪽에서 수도로 데려옴. 아리아와의 사이가 틀어지도록 조작해두고서는 아리아를 납치함.
- 파라 카를로스 (악역1) : 카를로스 가문의 언론사들로 아리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 블루로즈 등 아리아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객 컴플레인을 언론을 통해 대두시키며 명예를 실추시킴. 롱스 공작과 결혼한 배경도 해리 손느와 알베르 카를로스 사이를 계속 의심해왔기 때문. 해리 손느를 꼭 닮은 아리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리버티와의 약혼을 자신이 롱스 공작과의 결혼으로 빼앗아 온 것. 롱스 공작에게 사실은 리버티가 알베르와 해리 사이의 아들이라고 거짓말 하고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포함.
- 카밀라(악역2) : 아리아와 비슷한 외모로 가면 무도회에서 분장해 펠릭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거나 아리아의 사업체의 제품을 쓰고 난 뒤, 손상을 입었다는 유언비어를 사교계에 퍼트리기 시작함.

**결** (106~150화 예정)

빅토르의 악행을 파헤쳐 일에 연루된 악역들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메인 주인공 4명은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전력 동원하기 시작. 이미 빅토르는 신체와 정신이 망가졌고 아리아까지 납치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됨. 모아둔 증거자료들과 행적을 전부 공개한 메인 주인공들은 악역의 처벌 이후, 행복한 삶을 이뤄간다.

- 빅토르 : 사형 집행
- 파라 카를로스(악역1),카밀라(악역2) : 파문 이후 자결, 빅토르의 사형을 보고 자결